

하나님 편에 서라:

공동선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창호 (장신대 교수)

월리스의 '그리스도인 됨'을 공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에 두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 힘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받은 이들로,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으로 통치되는 온 세계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정치, 이념,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분명한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는 신자인 것이다(31). 이 책에서 월리스는 우리 시대 참된 신앙의 척도로 '공동선의 헌신'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독교'라는 중차대한 개념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실천적 이유와 논거를 탁월하게 펼치고 있다. 기독교와 공동선이라는 주제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살피면서, 월리스의 기여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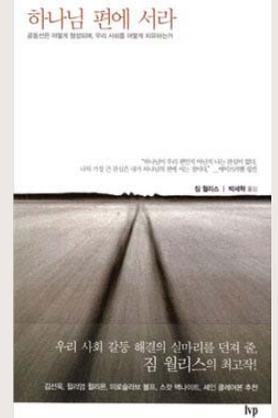
첫째, 기독교의 공동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고 그 담론과 실천의 지평을 확장했다. 기독교 공동선 전통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어거스틴(St. Augustine)이다. 공동선 전통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동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근본은 '사랑'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독교 사랑의 대상은 포괄적이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회·윤리적 이해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거스틴의 '두 도성'론을 생각해 보자. 신의 도성과 세속 도성은 대립 관계에 있지만,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화이다. 세속 도성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기본 조건으로서, 신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상 순례의 필요 조건으로서 평화를 소망한다. 그러나 후자는 완전한 평화로 천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추구하는 선(善)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차이를 감안하면서도, 어거스틴은 두 도성 사이에 공동의 기반을 상정한다. 다시 말해, 두 도성 모두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사람들에게 세속 도성의 법에 충실하라고 권고한다. 여기에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지상의 순례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어거스틴은 정치적 체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은 그러한 체제들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법과 악행을 제어하시고, 인간의 공동체적 실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신다. 요컨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지평을 존중하는 구원사적 구도 안에서, '신의 도성'과 '세속 도성'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 실존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에 관한 어떤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조건들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지의 지향들 혹은 사랑의 지향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결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리스는 어거스틴의 공동선·지향적 사회윤리를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월리스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어거스틴적 '공동의 기반'을 역설한다. "종교는 사람들을 이끌 때, 다시 말해 자신의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돌볼 때, 그리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최선의 영감과 상식을 활용해 모든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때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32) 그러기에 공동선을 위해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필요하다. 월리

저자 짐 월리스 | 역자 박세혁 | IVP



스는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의 책임성이라는 윤리적 관념과 진보주의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념이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요소들로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중요에 찬 갈등을 종식시키고, 양측 모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47-48)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개신교와 가톨릭, 기독교와 이슬람 등 신앙적·신학적·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또한 할 수 있다는 점을 월리스는 강조한다. 특별히 월리스는 이러한 공동선 추구에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한다.

둘째, 특수주의적 구원론 확장을 섭리론의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강화했다. 기독교 구원론의 특수주의적 확장을 시도한 대표적 신학자는 바르트(Karl Barth)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목적에 상응하여 화해와 사림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십자가에 드러난 아가페 사랑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라는 특수 관계 안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구현된 이야기와 설교, 상징에 의해 오랜 기간 영감을 받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 신학이다.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 개념이 원리의 측면에서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은 “항상 구원의 역사의 틀 안에서 내가 만나고 또 연합해야 할 동료 인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사랑에 근거한 확장성은 바르트에게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 핵심적 조건은 문 밖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꺼이(자발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아가페는 자유주의적 보편 구원론으로부터 독립적 위치를 고수하며, 고유한 기독교 신앙 고백과 공동체적 실재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배타성을 견지할 때, 결국 그것에 안정적 지속성을 부여할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자아·이웃의 삼위일체적 상호 관계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바르트가 구원론의 특수주의적 확장에 기여했다면, 윌리스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의 포괄성과 예수님의 이웃 사랑 윤리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기독교 사회윤리의 토대를 확장한다. 윌리스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모든 인위적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명령으로 해석한다. “모든 사회는 경계 - 자신과 ‘타자’ 사이의 장벽 - 를 만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인종적·종교적·지역적·종족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웃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며, 이 급진적인 관념은 공동선이라는 사상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선을 위한 영적 기초이다.”(171) 그러므로 공동선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헌신은 ‘모든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며(200), 이러한 헌신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윌리스는 기독교 사랑의 보편성을 구원론적·교회론적 지평에서 바라보는 바르트를 품으면서, 신론적 명제와 예수님의 이웃 사랑 윤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교회는 ‘모든 종족을 환영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187-215).

셋째, 교회가 공동선 구현의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여 교회론 성숙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기독교공동체주의자인 요더(John Howard Yoder)를 생각한다. 요더에게 교회의 사명이란 복음적 목적들의 실현을 통해, 교회 신앙의 우선성(primacy)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더의 복음화 개념은 개인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도, 그렇다고 전면적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밖으로는 사회의 실재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고자 한다. 영혼 구원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건설과 연결된다. 요더는 교회를 정치적 대안공동체(counter-

politics)로 이해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사명의 중심 혹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요더의 정치적 대안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저항의 교회론이 아니다. 요더에 따르면, 교회가 무저항의 사랑으로 사회적 영향(social leverage)을 끼칠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정신과 문화를 ‘구현하여 보여줌’(embody and show)으로써 가능하다.

윌리스의 교회론은 요더의 ‘대안으로서의 교회됨’을 공유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교회는 단순히 ‘구현하고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공적 영역 안으로 ‘들어 가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대안됨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부 ‘공동선을 위한 실천’은 주목할 만하다. 윌리스는 이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적 교양과 덕성의 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공동체 그리고 세계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선을 구현할 것인지 도덕적 기초뿐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슈퍼팩(Super-PAC)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돈의 지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9장 ‘민주주의의 구속하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들을 통제·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10장 ‘경제적 신뢰’),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을 넘어 ‘섬기는 정부’론을 전개한다(11장 ‘섬기는 정부’). 아울러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의를 치유하기 위해 자선적 실천뿐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한다(12장 ‘갈뚝을 바로잡으라’). 마지막 장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이다. 윌리스가 공동선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영역은 개별 시민사회나 하나의 국가공동체에 머물지 않는다. 인류가 구성하는 모든 정치사회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피조세계를 포괄한다. 그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도전한다. 헌신하되 기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쓸 수도 있다. 그러기에 윌리스의 사회윤리는 영역의 관점에서 교회의 안과 밖을 포괄하고 윤리실천의 관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망라하여 ‘공동선을 지향하는 통전적, 총체적 사회윤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 시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 시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탄식의 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윌리스의 도전과 격려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좁은 ‘우리’를 위한 삶을 탈피하고 교회의 안과 밖 ‘모두’를 위한 공동선에 헌신하십시오.” 시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강추’하는 바이다.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Th.B., 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을 거쳐 미국 Yale University(S.T.M., Ph.D.)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조교수(기독교와 문화)로 섬기고 있다.